

〈서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담는 것이지,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세상은 담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실상이자 증거라고 지난주에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자만이 실상과 증거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 피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절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피를 한번 바른 사람은 다시 이 피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상과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창3:15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림자의 실상, 창6:14 방주의 실상, 출3:18 유월절 양의 피의 실상, 사7:14 임마누엘의 실상, 마16:16 그리스도의 실상입니다. 요19:30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실상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림자를 붙잡는다면 끊임없이 갈등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상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상에 대한 증거가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증거입니다.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운명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답, 생명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배경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본론〉

1.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히11:20)**

과거를 본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미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삭은 축복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축복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주었지만 이삭은 축복받은 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와서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이삭은 야곱에게 다 축복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던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히11:21)**

야곱도 아버지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믿음이 아들 야곱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세상을 공부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글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히11:22)**

실상과 증거에 대한 믿음이 언약으로 후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것을 각인시킨다면 후대가 망하지만 믿음으로 실상과 증거를 언약으로 전달한다면 후대는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2. 요게벳과 모세의 믿음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히11:23)**

놀랍게도 모세가 낳을 때 모세의 믿음은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두 살 밑의 어린아기는 다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인 요게벳은 이 죽음의 위기가 닥치는 시대에 언약을 전달함으로써 자녀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부모가 가진 실상과 증거가 전달됨으로써 왕의 죽이란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어머니의 믿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똑똑했다면, 나일강의 흐름을 분석했고 바로의 딸이 언제 나오는지도 알고 모세를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면 유모를 찾을텐데, 그 유모가 자기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석달동안 모세를 키우고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모세가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히11:24)**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서 애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걸 거절해 버립니다. 모세에게 애굽이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광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를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11:26)**

모세가 애굽 왕자를 거절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언약을 심었던지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런 언약전달을 하는 부모를 만난 자녀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세는 이미 어린아이일 때 어머니를 통해 그림자가 아닌 실상인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히11:27)**

이게 바로 모세의 광야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은 그 믿음으로 광야 40년의 고생을 참고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히11:28)**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넌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히11:29)**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히11:30)**

놀랍게도 모세가 실상과 증거를 붙잡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60만 대군이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와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빙빙 돌려서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이 다윗의 재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실상과 증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믿음이 실상과 증거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믿고 실상과 증거로 붙잡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 믿음의 영웅들

▶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히11:31)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십시오. 무슨 믿음입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는 거짓말에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연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정탐꾼이 가지고 있는 피의 비밀을 붙잡은 것입니다.

▶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히11:32)

너무 믿음의 사례가 많아서 기록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가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히11:33-34)

한마디로 믿음으로 끝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면 끝이다, 실상과 증거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토를 달면 안됩니다. 아 그래도 같은 말이 들어오면 안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면 끝나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끝을 내야 합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정도로 붙잡아야 합니다.

▶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히11:35)

여자들이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히11:36-37)

순교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당해도 개의치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실상과 증거로 끝난 파수꾼이 맞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괜찮아야 합니다. 요즘은 기껏 살아야 백년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느 정도의 비밀을 가진 것인지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건강검진 안하냐고 믿는데 저에게는 그게 안 들려와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날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도 순교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히11:38)

세상을 닦지 마시고 세상을 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담아서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못 담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담고 살릴 수 있습니다.

▶ 이 사람들은 세상을 광야에서 담았고 산에서 담았고 동굴과 토굴에서 담았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담고 살린 증거가 바로 로마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히11:39-40)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는 증인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린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 믿음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떤 상황, 문제에도 현실, 사실, 진실을 붙잡지 마시고 영적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사실을 붙잡은 사실은 문제가 와도 응답이 됩니다.

▶ 이 믿음의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담고 살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 이번주간에 굉장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담고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